

제3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연설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30회 '상공의 날' 을 맞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계신 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해외에서 오신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다른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상공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긴박합니다. 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북한 핵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상한 각오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라크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씬 없이 나아가고, 개도국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국경 없는 경제전쟁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관건은 경쟁력입니다. 무한경쟁을 이겨내고 다가올 동북아 시대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와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혁은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무엇보다 기술혁신으로 '제2의 과학입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술력이야말로 경쟁력의 뿌리이자 성장의 동력입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먹고 살거리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기술혁신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더 많은 과학기술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학·연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도 중요합니다. 특히 모방이 아닌 우리만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을 갖추어 나가야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통제조업도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첨단기술력 못지 않게 시장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제,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체질이 건강해야 우리 기업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튼튼한 경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혁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시장개혁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쉬지 않고 하겠습니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바꾸는 문화혁신도 필요합니다. 타협이 통하지 않는 분열과 갈등,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변칙과 편

법, 이 모두가 경제 성장과 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과 관행을 바꾸지 않고는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시장개혁도, 기술혁신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내려야 당당히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적인 노사관계의 정립도 시급합니다. 안팎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관계마저 흔들린다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하고 말 것입니다. 노사관계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노사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노사 어느 쪽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방에서 오신 분, 그리고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때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방과 중소기업이 살지 않고는 나라경제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중앙과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기회를 지방과 중소기업에도 분산해 가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도 변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행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경제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와 행정의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상공인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동북아의 변방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

국·일본의 거대시장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를 연결하는 충분한 물류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은 이미 세계 선두권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면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더욱 힘을 모아 극복해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숭한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을 믿습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능히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동북아 중심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가집시다. 서로 손잡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